

2023년 G-SURF 연구 발표회 개최

- 학부생 65명 방학 동안 대학원 실험실서 연구 수행
- 대학원 교수 멘토링과 연구실 경험 통해 과학기술 연구자의 꿈 키워



▲ 2023년 G-SURF 포스터 발표회장 전경(GIST 오룡관 로비)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학부생들의 대표적인 연구 참여 프로그램인 '2023년 G-SURF* 포스터 발표회(Poster Session)'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

* **G-SURF**: 미국 칼텍(Caltech)의 하계 대학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인 SURF(Summer Undergraduate Research Fellowship)를 벤치마킹한 대학의 여름방학 프로그램

G-SURF는 학생팀 주관으로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여름방학에 개최되며,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. 포스터 발표회는 최근 정부의 방역완화로 올해 3년 만에 다시 개최됐다.

G-SURF에 참여한 학부생들은 여름방학 동안 대학원 실험실에서 기초과학의 원리와 지식을 실제 연구에 적용해 보고, 대학원 지도교수의 멘토링을 받으며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습득할 수 있다.

올해는 총 65명의 학부생이 교수 47명과 함께 연구 과제를 수행했으며, 지난 8월 29일(화) GIST 오룡관 로비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.

기계공학부 허필원 교수의 'Dynamics and Biomechatronics Lab'에서 G-SURF를 수행한 배성한 학생(기계공학전공 3학년)은 "좋은 성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, 간단한 연구경험을 통해 실제로 어떤 지식들이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지 이론수업에서 배우기 힘든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에 대한 학습의 중요성을 느낀 것 같다" 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.



▲ 2023년 G-SURF 포스터 발표회 마무리 기념 단체 사진

신소재공학부 김호범 교수의 'Semiconductor Photonics and Electronics 연구실'에서 G-SURF를 수행한 **박희주 학생(신소재공학전공 3학년)**은 "**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의 공유와 같은 협업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**"며 "**기초과학 원리와 지식을 실제 연구에 적용하는 것은 기존의 지식 습득과는 전혀 다른 영역임을 깨달았고,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기를 필요성을 느꼈다**"고 말했다.